

“오월 어머니의 눈물”은 광주 어머니께 바치는 헌시

80년 오월 광주 상흔과 아픔 담은 시집 펴낸 조현옥씨

“망월동에서 묘비를 쓰다듬으며 오월하는 어머니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시는 광주의 아픔이 반복돼서는 안 되기에 온 몸으로 저항하듯 시를 썼어요.”

해마다 광주의 오월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묻은 이들로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 신근부의 총칼에 지식과 남편, 아내 그리고 부모를 잃은 이들에게 오월은 ‘잔인한 달’이다.

80년 오월 광주의 상흔과 아픔을 한권의 시집에 오롯이 담아낸 시인이 있다. 주인공은 조현옥 시인(52). 조 시인이 이번에 펴낸 ‘오월 어머니의 눈물’(렛츠북)은 ‘광주 어머니들’께 바치는 헌시(獻詩)다.

조 시인은 그동안 시대의 아픔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발표했다. 2015년 세월호 참사를 소재로 한 작품집 ‘4월의 비가’, 그리고 지난 3월 일본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인 위안부 문제를 다룬 ‘일본군 위안부의 눈물’ 등 시대의 모순, 부조리를 고발하는 시집을 펴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조 시인의 고향을 광주나 남도의 어느 지역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그녀의 고향은 충북 옥천이다. “옛이야기 지출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로 시작되는 ‘향수’의 시인 정지용과

세월호 참사·일본군 위안부 등

시대 모순·부조리 고발 시집 내

시국선언 동참 블랙리스트 낙인

동향이다.

“광주에 시집을 온지 28년이 됐습니다. 고향에서는 제가 죽었다는 소문이 돌 만큼 이제 광주 사람이 다 됐거든요.”

조 시인은 광주에 정착한 이후 역사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가슴 속에는 늘 고향 선배 시인 정지용의 시 정신을 이어받아 좋은 시를 쓰고 싶다는 열망이 있었다.

1992년 ‘문학공간’을 통해 문단에 나온 그녀는 본격적으로 사 창작에 매진한다. 광주 민중들이 염원하는 자주와 평화통일 그리고 소외된 이웃 등이 주요 소재였다.

특히 80년 광주의 오월을 알게 되면서는 왜 시를 써야하는지, 왜 광주의 노래와 혁명의 노래를 쓴 광주의 시인들과 뜻을 같



이해야 하는지 깨닫게 됐다.

“1996년 가을에 보안수사대에 가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경찰은 취조 전에 고문실을 보여주었어요. 타일이 붙은 옥조 같은 시설이 설치돼 있었는데, 오금이 저렸어요.”

조 시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국가 기관 수사대에 끌려가 몇 번의 조사를 받았

켰던 시 때문이었다. 출두요구서도 없이 아침마다 걸려오는 협박전화에 시달리기도 했다.

2004년에는 시 ‘이라크 파병을 결사반대한다’로, 2005년도에도 창작시와 관련 전남청 보안과에서 수사를 받았다. 2014년에는 ‘세월호 시국 선언’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블랙리스트 시인’이 됐다.

조 시인은 “광주의 어머니들을 생각하면 국가보안법도 무섭지 않고 두렵지 않다”며 “시인이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위해 시를 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팝나무 꽃 아득히 흐드러질 때/ 흰 쌀밥 고통으로 해놓았으니/ 너 돌아올 수 있겠니./ 너 한 번만 다시 볼 수 있겠니./ 그 얼마나 보고 싶겠나./ 부모 가슴은 풍이 된다./ 다시 미치지 않으면/ 오월은 가지 않아.”(‘어머니의 눈물’ 중)

시인은 해마다 오월이 되면 오월하는 광주의 어머니들께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내가 어머니가 되어보니 그 마음 더욱 절절하다”고 덧붙였다.

“오월 발보 명령자는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또한 국가 문란 관련 범죄는 공소 없이 수사해서 이땅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지역 특산물 제조 가공·인허가 취득 지원”

전남어촌특화센터·광주전남영양사회·광주일보 협약

사단법인 대한영양사회 광주·전남영양사회(이하 광주·전남영양사회)가 전남 어민들을 대상으로 특산물 제조 가공에 필요한 위생 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인·허가 취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센터장 임광희)는 17일 광주·전남영양사회, 광주일보와 잘 사는 전남 어촌과 어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이번 협약으로, 광주·전남영양사회는 센터의 의뢰를 받아 관리 대상 어촌의 특산물 제조 가공에 있어 주민들을 상대로 제반 사항을 교육하게 된다. 또 센터가 관리하는 전남 어촌의 특산물이 지역 내 공동급식에 공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광주일보는 광주·전남영양사회와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력하게 된다.

장사영(46) 광주·전남영양사회 회장은 “전남의 수산물을 전국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생산 단계부터 위생을 철저히 챙겨보겠다”며 “어민들이 단순 가공 등에 있어서 인·허가를 받는 데도 그동안의 노하우를 전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광희 센터장은 “전남의 수산물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고질적인 측면에서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수하다”며 “전남산 수산물이 안전한 먹거리로 정착될 수 있도록 센터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협약 체결 후 센터는 자문위원회를 열고 류재영 전임 센터장을 자문위원장으로 추대했으며, 2017년 사업 전반에 대한 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들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사진=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제공

“패러다임 과감히 바꿔야 대한민국 교육 산다”

‘바보야! 대한민국 교육은 미쳤어’ 낸 여수 여양고 김광호 교사

“대한민국 교육은 죽었습니다. 교육의 목적과 동떨어진 채 오직 명문대에 입학하기 위한 출세 지향적 교육에만 열을 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 많은 사람들은 소외를 당하고 곳곳에서 고통의 소리가 끊이지 않아요.”

여수 여양고 김광호 국어교사(51·사진)는 공감과 소통에 기반한 교육을 해야 한다는 소신을 갖고 있다. 김 교사가 최근에 펴낸 ‘바보야! 대한민국 교육은 미쳤어’(박문각)는 학교 현장에서 경험하고 느낀 다양한 생각들이 갈무리돼 있다.



이색적인 제목의 책은 교육의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김 교사는 “고전, 철학, 심리, 독서, 문화, 예술을 초동과 중등 교육 과정에 편입해야 한다”며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인문학과과의 만남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대로 국가의 교육은 길게 봐야 한다. 무엇보다 명문대에 몇 명의 학생을 보내느냐로 교육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의 지수가 높은 학생이 많이 재학한다고 그 학교를 명문학교라 칭하는 세대는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고 덧붙인다.

“지금부터라도 교육을 편협하게 정의하지 말고 ‘체성(體性)·덕성(德性)·지성(知性)’을 기르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이 책이 모든 아이들이 자신의 꿈을 오롯이 펼칠 수 있는 고민의 출발점이 됐으면 해요.”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철갑 광주근로자건강센터장

버스·법인택시종사자 건강사업

이철갑 광주지역 근로자건강센터장은 최근 전국 최초로 버스 및 법인택시 운전종사자에 대한 건강관리 사업을 진행했다.



이철갑 센터장은 “이번 버스, 택시 운수종사자 뇌심혈관뿐만 아니라, 장시간 노동에 따른 근골격계 예방, 직무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건강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여 광주시민들이 안전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라며 의지를 밝혔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광주경영자총협회,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약정 체결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17일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와 2017년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약정을 체결했다. <사진>



약정에 따라 청년취업아카데미에서는 고용노동부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 된 7개 교육과정(장기과정 : ECO자동차·기계 부품설계 전문인력 양성과정, 단기과정 : 2D도면작성과 공정관리 기본과정 1·2, 스마트 ERP와 전산회계 기본과정 1·2, 웹기반 소셜마케팅 기본과정 1·2)의 교육 및 취업인원 144명

에 대한 교육을 진행한다.

광주경영자총협회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연속 청년취업아카데미사업을 수행하게 되며 전국 청년취업아카데미 사업 운영기관 중 유일하게 자체 취업박람회

를 통해 6회 개최해 지역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왔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기아차 파트장 협의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답사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생산을 담당하는 파트장 협의회는 지난 13일 지역사회 장애인과 함께 남원 춘향테마파크에서 문화답사를 진행했다. <기아차 제공>

광주보건대 안경광학과 개설 30주년 기념식



광주보건대(총장 정명진) 안경광학과는 최근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에서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과 개설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광주보건대 제공>

생활 게시판

여러분의 생활정보를 실어드립니다. opinion@kwangju.co.kr 이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생활게시판 담당자앞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TEL 062-220-0654 FAX 062-222-4938. 222-4918

화측

▲박상철(옥과농협 조합장)·이명옥씨 장남 현일군 이병제(전 국립소록도병원 근무)·명은자(국립소록도병원)씨 장녀 수진양=20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서구 홀리데이 인 광주호텔 2층 라멘테홀.
▲조용대(서광주세무서 근무)·곽혜숙씨 장남 우진군 이희만·원미자씨 장녀 은솔양=28일(일) 낮 12시30분 서울 강남 더 체펠렛당 3층 커티지홀.

동문회

▲조대부고 총동창회 22차 정기총회=23(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서구 지평동 라마다플라자 광주호텔 4층 대연회장 062-224-1461.

향우회

▲재광영암군향우회(회장 조성희) 제 67회 정기총회=25일(목)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3층 에메

랄드홀 062-654-6600. 문의 박미서 사무총장 010-3640-3308, 위성운 총무국장 010-3604-9292.

종친회

▲고씨 광주중흥회(회장 고정주) 정기총회=20일(토) 오전 11시 광주시 남구 백운동 프라도호텔 문의 고재운 010-9430-9129.

▲신창명씨(新昌孟氏) 사직공(直直公) 파 휘(諱) 정로(挺魯)공 중원 발기인대회=20일(토) 오후 5시 서울시 종로구 37가 국립과연 한일장. 02-2265-7707. 문의 맹정후 010-3117-7454.

▲전주이씨 대동종약원 광주·전남지원(지원장 이달우) 월례회 : 여성이화회=22일(토) 오전 11시 지원 회의실 062-225-5636.

▲광산이씨 필문회(회장 이태교) 월례회=22일(월) 오후 6시 30분 광주시 동구 금남로5가 롯데백화점 건너편 종친회 사무실.

알림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휴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대한사회복지회 우리집=미혼부모 상담 및 미혼모자가가족복지시설 입소 안내, 학생미혼모 단기위탁교육 기관으로 협력 인정, 무료의료지원 및 속식보호 062-232-1313.

▲광주장애인인권센터 상담=장애를 이유로 인권침해나 차별을 당한 장애인 상담 및 지원 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062-369-0420(1577-5364).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법률상담=월~금 오전 10시~오후 5시. 국번없이 132. 무료 법률 상담 및 법률구조. 면접 상담은 광주시 동구 준법로3 대한법률구조공단 광주지부.

▲광주 북구중독관리센터 여성주간재활프로그램=음주유해대처 및 단주법 강화 매주 화요일 오후 2~3시 북구중독관리센터 4층 교육실 062-526-3370.

▲습관성도박자 및 가족대상 전문상담 치료 및 병원위탁 무료 치료=성요한병원(6개월 무료입원 및 통원치료) 상담시간 월~토(오전 10시~오후 8시까지) 062-527-3400, 3403.
▲지적장애인 성인 주·야간보호 서비스 실시=월~금 오후 5시~9시 사랑모아 주간보호센터 062-385-0422.

모집

▲광주평생교육진흥원 중장년세대를 위한 무료 프로그램 참가자=스마트워크 & 오피스(매주 월요일 오전 10시~12시), 중년들의 몸뚱이운동(매주 월요일 오후 2시~4시), 생애실기 이해와 방향(매주 목요일 오후 2시~4시), 장소 광주 광산구 소촌동 232-2, 광주시공무원교육원 4층 강당, 문의 062-600-5242.

▲정원타이거즈 사회인야구 회원=야구에 관심 많은 사회인 야구단원 모집, 주말 연습 및 경기 진행, 문의 정원타이거즈 감독 010-9092-0343.
▲북구 골든벨 축구클럽 동호회원은 즐

겁게 운동할 수 있는 분. 20세 이상, 선수 출신 환영. 010-3608-1060.

부음

▲임상현씨 별세 광수(광주북부경찰 형사과 경위)씨 부친상=발인 18일(목) 광주시 북구 그린장례식장 신관 2층 010-6640-0926.

▲오정희씨 별세 김중원·종신·종익·수연·수정씨 모친상 표숙자·박애자·평희씨 시모상 김재열·주일신씨 빙모상=발인 1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1분향소 062-231-8901.

▲김태금씨 별세 송진국·진형·진선·은진씨 모친상 김현숙·장준옥씨 시모상 최진하·박필주씨 빙모상=발인 19일(금) 조선대학교병원 장례식장 제3분향소 062-231-8903.

<p>謹 삼가 故人의 冥福을 빕니다 弔</p>	
<p>201호 故백락순 님(여/103세) 子/子婦: 백영권/차영숙, 종현/정영자, 호현/윤강자 女/婿: 남원/최성자, 우현/송정희 ●발 인: 5월 19일 ●장 지: 옥과 선영</p>	<p>301호 故박용수 님(남/50세) 子: 박우성, 재만 女: 박다솔 未亡人: 김정희 ●발 인: 5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p>
<p>401호 故김수영 님(여/22세) 女/母: 김광림/최금순 ●발 인: 5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p>	<p>102호 故이대주 님(남/62세) 子/子婦: 이현성/김가영, 현수/박화진 未亡人: 임수영 ●발 인: 5월 18일 ●장 지: 영락공원</p>
<p>함께 할 10년, 함께 할 100년 금호장례식장 062-227-4000 www.mykumho.com</p>	